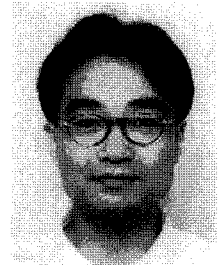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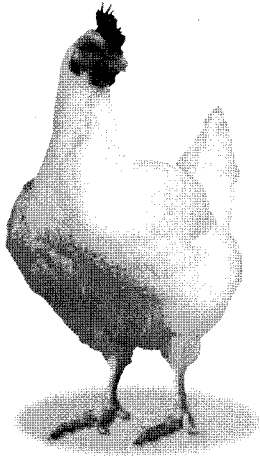


원종계 감축 이후, 남겨진 과제들



이 일 호 기자
축산신문사

지난 11월 7일 서울 서초동의 축산회관 5층 대한양계협회 회의실.

(주)하림과 (주)삼화육종, (유)한국원종 등 원종계 3사 대표는 농림부 및 농협, 양계협회, 계육협회 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에 준비된 원종계 감축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6월 30일 한국계육협회와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협의체인 종계관련협의회(이하 종관협)의 제안에 따라 첫 회의가 이뤄진 이후 무려 5개월여간 끌어온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원종계 3사는 5차례에 걸친 회동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해 왔으나 삼화육종과 한국원종 등 2개사의 참여한 입장차이로 번번히 결렬, 연말

에 다가가면서 한 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감축이)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비등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1년반 이상 불황이 지속되자 위기감이 극에 달한 육계업계의 여론이 “씨앗부터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쪽에 대세를 이뤘은 데다 농림부까지도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며 강력한 의지로 가세, 원종계 3사를 독려함으로써 마침내 ‘자율적인 원종계 감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종계 3사는 합의서 작성 다음날인 8일 실무협의회를 갖고 원종계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원종계 감축 합의는 시작단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닭고기 소비량에 따라서는 감축키로 한 원종계 수입량 자체도 확실히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규모인데다 효율적인 종계환우 저지대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기능에 의한 육계산업의 구조조정 지연과 업계의 갈등만을 가중시키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 얼마를 줄었나?

이번 감축합의에 따라 원종계 3사의 올해 원종계 수입량은 (주)삼화육종 5만수, (유)한국원종 2만4천수, (주)하림 2만수 등 D라인 기준으로 9만4천수에 머물게 됐다.

당초 종관협안에서 한국원종에 대한 배정규모가 2천수 늘어난 것으로 올 초 이들 3개사에 배정됐던 최소시장 접근물량 15만5천8백36수의 60%에 해당하는 것.

원종계 3사는 이에 따라 상반기 물량에 대한 도태작업에 나서 (유)한국원종이 지난 14일 양계수급안정위원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등 확인단의 입회하에 4천수에 대해 랜더링을 실시한데 이어 15일에는 (주)하림이 당초 계획했던 2천수, (주)삼화육종의 경우 17일부터 도태에 착수, 21일 예정량인 2만5천수를 모두

감축했다.

합의한 물량을 상·하반기로 나눠 이미 상반기에 들어온 물량 가운데 초과분을 도태시킨 것. 다만 한국원종은 상반기 물량에서 1천수를 더 도태할 것을 강력히 희망, 수용됐다.

이들 물량에 대해서는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 종계가격의 60%인 수당 3만1천2백50원이 장려금 차원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2. 감축효과는?

무엇보다 닭고기 소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우선 닭고기 소비가 최근의 추세대로 이어질 경우다. 당초 종관협이 제시한 9만2천수의 원종계 감축안은 육계업계가 호황을 구가했던 지난 2001년도의 총

닭고기 소비량에서 2002년도 닭고기 수입량을 뺀 것을 닭고기 소비량으로 볼 때 4백17만여수가 적정 종계사육수수라는 결론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원종계 수당 종계 45수, 종계 실용계 1백10수 생산 기준, 종계



지난 11월 7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원종계 3사 대표는 9만4천수의 원종계 감축에 합의했다.

자연감소율 10% 적용).

그러나 업계가 추정하는 대로 올해 닭고기 소비량이 지난해에 비해 15% 가까이 감소했다면 그간의 닭고기 소비증가율과 수입닭고기 감소량을 감안하더라

도 2001년보다 닭고기 소비가 더 줄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군다나 감축협상과정에서 2천수의 원종계가 늘어난 상황에 종계생산에 특별한 변수가 없이 올해 수입된 원종계가 닭고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2005년까지 최근의 닭고기 소비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원종계 감축사업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특히 원종계 및 종계의 실제 수당 생산량에 비해 종관협회의 기준이 낮게 책정됐다는 점도 그 가능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늘어나기는 했으나 종관협회가 애초에 원종계 수입을 최대 9만수로 제한하는 감축안을 제시하려 했던 것도 이러한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감축'이라는 대세에 눌려 외부에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원종계 감축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올해 육용전용종계입식량 3백80만수선에서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말해주듯 시장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원종계 업계에 대해 철저한 강선발을 통한 종계생산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하반기부터 회복될 경우 닭고기 소비도 증가, 예년의 추세를 되찾는다면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

더욱이 정상적인 종계생산량도 일정수준에서 국한될 것인 만큼 호경기에 편승한 종계입식의 막연한 증가에서 이어지는 닭고기 가격하락의 가능성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환우대책

원종계 감축이 추진될 당시부터 업계에서는 종계환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사실상 쿼터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원종계 감축에 따라 당초 업계가 기대한 대로 육계가격이 안정될 경우 종계 수요증가와 함께 종계의 환우추세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서는 없는 데다 설령 새로이 마련한다고 해도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원종계 농장차원에서 환우종계장에 대해서는 종계분양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종계농장이 각 종계장의 사육현황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데다 양계협회가 집계한 각 원종계농장별 분양 실적을 공유할 경우 종계환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원종계 업체들의 투명하고 정확한 분양실적 통보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이들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4. 논란전망

원종계 3사의 합의서에는 종계수입 및 차별분양 금지를 단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계수입금지 단서의 경우 원종계 3사의 의지만 있을 경우 국내에 수입된 품종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하바드 등 수입이 중단되거나 국내 미도입

품종의 경우 능력을 갖춘 종계장이라면 충분히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느 한 원종계농장이라도 질병 등으로 인해 종계분양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수급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필요시 원종계 3사에 의한 수입추진의 예외규정을 두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차별분양 금지 조항이다. 이는 자사 주주들에 대한 삼화육종의 차별우려를 없애자는 한국원종의 판단에 따른 것이긴 하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차별여부를 주관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계분양가격의 변화 여부도 업계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경기회복이 이뤄지거나 질병 등 변수로 인해 종계 공급이 부족할 경우 종계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하림은 종계분양을 하지 않고 자사사용량으로 충당하는 만큼 종계가격과는 무관한데다 한국원종의 경우 고객인 종계장들의 소유라는 점에서 일정선 이상은 가격 인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삼화육종의 가격정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5. 업계 여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감축안이 종계 및 육계업계의 판도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치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원종계 업계 입장에서는 종계수요가 늘어날 경우 우량고객이나 지금까지의 구매충성도 등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럴 경우 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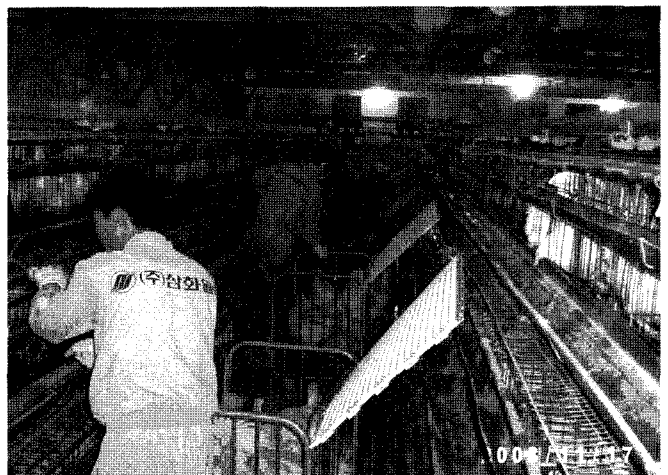
종계부화장이나 계열화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이번 원종계 감축을 쿼터제 개념으로 인식, 향후 수급전망과는 관계없이 종계에 대한 가수요가 붙을 경우 이같은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감축협상 타결 직후 종계업계 내부에서는 종계의 가수요 추세 출현여부에 대한 진위논란이 유발되기도 했다.

이는 곧 중소규모 종계부화장의 위축과 이들에 대한 병아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사계열화 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 결국 계열화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한국원종이 (주)하림과 연계, 당초 수입키로 한 로만품종을 포기하고 종계보다는 실용계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코브종을 도입을 추진했던 것도 계열화로 육계산업 집중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 요인이 큰 만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C



삼화육종의 원종계 도태 작업 모습